

Daily Auto Check

2022. 7. 1 (Fri)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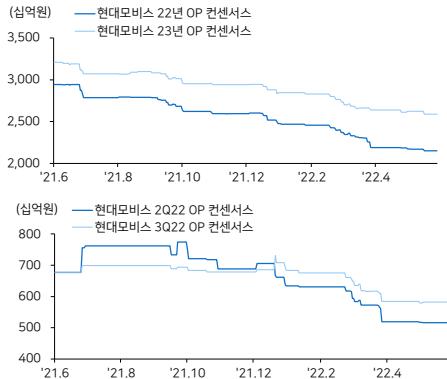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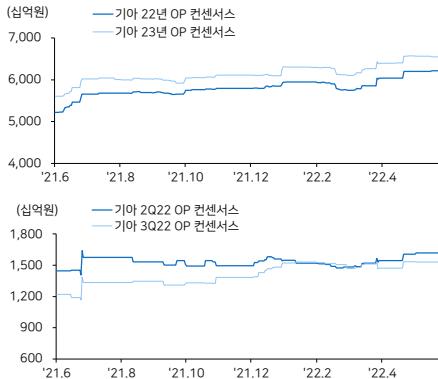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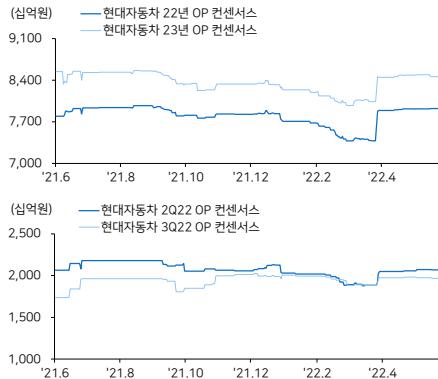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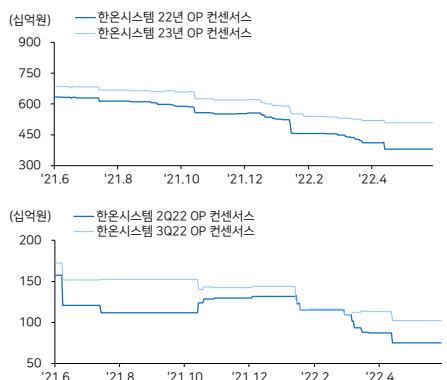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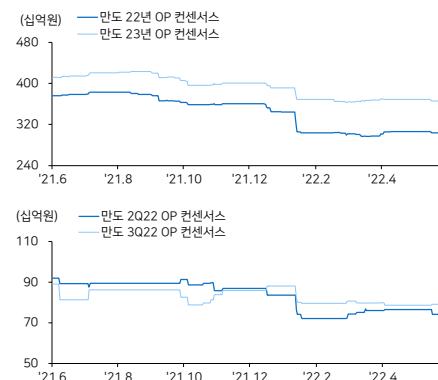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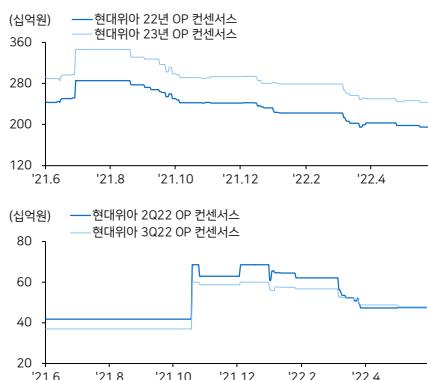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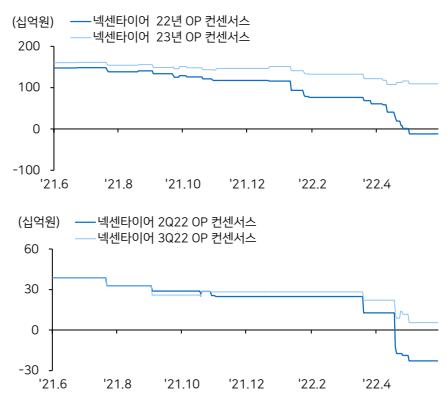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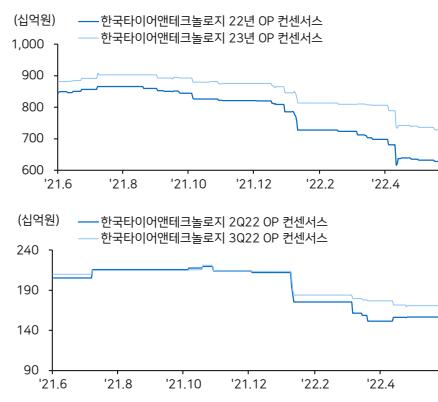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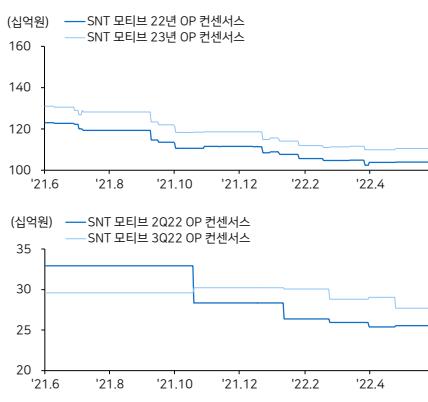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미국에 신사업 투자법인 설립…7000여억원 출자 (뉴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신사업 투자를 위한 계열사인 'HMG 글로벌 LLC(유한책임회사)'를 설립, 투자에 참여한 계열사는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3사로, 총 현금 출자액은 7,476억원 수준이며 나머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분의 현물출자.
<https://bit.ly/3OV8wgM>

하반기 수출 가장 우울한 업종은 전자·철강…자동차·선박은 호조 (헤럴드경제)

올 하반기 업종별 수출 전망 결과, 전자와 철강 등은 감소세가 또렷한 반면 자동차와 선박은 선방할 것이라는 분석이 기점임. 업종 평균 2H22 수출이 yoy +0.5% 증가에 그칠 것에 반해 자동차는 +3.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https://bit.ly/3ydkqKq>

Car Wars study: By 2026, 60% of new models will be EV, hybrid (Automotive News)

완성차 업계가 공급망 문제에서 벗어난 이후 2026년까지 EV 비중이 40%, HEV/PHEV 비중이 20% 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그러나 일부업체들의 대량생산/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음을 지적함.
<https://bit.ly/3ugye7g>

Wall Street analysts reaffirm positive views on NIO, refute short-selling allegations (CNEV Post)

월가 컨센서스는 NIO의 공매도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도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 중. Morgan Stanley, JP Morgan, Deutsche Bank, Daiwa는 기존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공매도 리포트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거 없는 우려임을 강조.
<https://bit.ly/3OW4Df6>

현대차 파업 친반투표 D-1… 4년 만의 '전운' (조선비즈)

노조는 오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친반투표를 진행할 예정. 조합원 투표에서 창의안이 가결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이견을 좁힐지 못하고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현대차 노조는 즉시 파업권을 얻게 됨.
<https://bit.ly/3ytTw3Y>

중부전력, 글로벌 진출…폭스바겐 독일 공장 꿈꿨다 (THE ELEC)

폭스바겐이 자체 생산할 배터리 공장에 중국 업체들이 핵심 설비를 공급할 예정. 중국 배터리 장비업체인 잉허커지와 선도 지능이 일질조기터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20GWh 규모)에 배터리 장비를 담당하기로 함.
<https://bit.ly/3bCRIGr>

Tesla leads in luxury brand loyalty, and it's not slowing down, S&P Mobility says (Auto News)

자동차 업계의 재고가 부족해진 2020.1-2022.4Q 기간 중 브랜드 충성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자동차 브랜드와 럭셔리 브랜드의 충성도가 큰 타격을 입은 반면, '테슬라, 마세라티, 제네시스'는 오히려 충성도가 상승함.
<https://reut.rs/3a5YH0s>

Apple eyes fuel purchases from dashboard as it revs up car software (Reuters)

Apple은 이르면 올 가을 Carplay의 최신버전에서 Fuel 앱을 통해 출발유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미 전기차 충전, 음식 주문, 출장 마일리지 적립 등 앱을 추가 중이며 거래 당사자들에게 비용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https://reut.rs/3a5YH0s>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